

#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tical on Subjective Happiness of Firefighters

Hee Chul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7년 6월12일부터 8월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네트워크( $\beta=.315, p<.001$ ), 신뢰( $\beta=.293, p<.01$ ), 협력( $\beta=.225, p<.01$ )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증진을 위한 노력, 소방조직 간 소통의 통로로서 공식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활성화와 조직의 정책과 제도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립 등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방공무원,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신뢰, 협력,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irefighters'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happine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Jun 12 to Aug 25, 2017, and a descriptive analysis, t-te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351 firefighters in Gyeonggi-do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network( $\beta=.315, p<.001$ ), trust( $\beta=.293, p<.01$ ), cooperation( $\beta=.225, p<.01$ ) and trust among other sub-variables of firefighters' 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various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capital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fire-fighters' happiness: efforts to increase trust within the organization, political support for vitalizing formal network as a communication channel among firefighters organizations, encouraging interest in the community and promoting informal network such as volunteer work, developing transparency in operating the organizational policy and system, etc.

**Key Words** : Firefighters, Social Capital, Network, Trust, Cooperation, Subjective Happiness

### 1. 서론

소방공무원의 행복감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 확보와 위협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해야 하는 직군 특성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a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7)

\*Corresponding Author : Hee Chul Choi(pride838@kangnam.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8

Revised December 5,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에 의거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느끼는 자기만족감으로 정의된다[1]. 행복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고,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도 달리 받아들여지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2]. 또한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웰빙(주관적 안녕감) 등은 실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때에는 유사한 의미로 간주된다[3,4].

특히 소방공무원은 화재는 물론이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현장의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삶의 질을 낮추며 정신과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6,7]. Kang(2012)의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은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체제로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인적 시간을 갖기 힘든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런 연구결과들을 볼 때,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행복의 설명요인으로 삶의 질 통합모델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Costanza 등[9]에 의하면, 이 모형은 사회적 자본, 사회정책,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에 대해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자본으로서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말한다[10].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로, 모든 인간행위는 관계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11] 곧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무형자산의 역동에 대한 가치이며, 이는 사회적 맥락에서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여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12]. 이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결과로 보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은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와 화합, 합리적 소통으로 건강한 조

직문화 형성과 효과적 조직목표 달성의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Sridharan과 Gillespie(2004)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3]. 사회적 자본은 관계형성이 문제해결능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협력에 증점을 둔 관계형성을 가능케한다[14]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OECD(2001) 보고서에서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로 제시되었다[15]. Dolan 등(2008)도 사회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 중 소외감과 신뢰성 결여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부족 등이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16]. Fukuyama(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사회관계의 기본이 되며 주관적 안녕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된다[17]. 서로 신뢰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여 불신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관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18].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심리사회적인 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련을 조사한 연구들[19-22]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살펴보는 연구들[23-25]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관적 행복감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와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소방정책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경기지역 소재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12일부터 8월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본

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370부가 배포되었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51부였다.

## 2.2 조사도구

### 2.2.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해서 Rohe[26]가 개발하고 서혜숙[24]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 네트워크, 신뢰, 협력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점수가 클수록 자신이 인식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35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으로는 참여 .786, 네트워크 .864, 신뢰 .845, 협력 .842으로 나타났다.

### 2.2.2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uh와 Koo[27]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 문항으로 삶의만족(3문항), 긍정적 정서(3문항), 부정적 정서(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부정적 정서의 3 문항은 역점 수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47로 나타났다.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 응답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1)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326	92.9
	female	25	7.1
age	under thirty	74	21.1
	more than thirty under forty	135	38.4
	more than forty under fifty	93	26.5
	more than fifty	49	14.0
	Mean 38.60 (S.D 8.8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82	23.4
	more than college	240	68.4
	more than graduate school graduation	29	8.2
religion	christianity	92	26.2
	catholic	13	3.7
	buddhism	26	7.4
	other religion	11	3.2
	no religion	209	59.5
marriage	single	98	27.9
	married	239	68.1
	divorce and separation	14	4.0
assigned task	fire fighting	174	49.6
	rescue	31	8.8
	first aid	80	22.8
	administrative	53	15.1
	other task	13	3.7
work type	regular day shift	63	17.9
	two shifts	92	26.2
	three shifts	196	55.9
work period	Mean 61.03 (S.D 77.87)		

먼저 성별은 전체 351명 중 남성이 326명(92.9%)으로 소방직의 근무특성상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연령은 38.60세로 최소연령은 23세, 최고연령은 60세로 조사되었다. 학력을 보면, '대졸이상'이 240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는 82명(23.4%), '대학원이상'은 29명(8.2%)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무교가 209명(59.5%)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신교 92명(26.2%), 불교 26명(7.4%), 가톨릭 13명(3.7%), 기타종교 11명(3.2%)의 순이었다. 결혼은 기혼자가 239명(68.1%)으로 미혼자 98명(27.9%)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담당업무에서는 화재진압이 174명(49.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구급 80명(22.8%), 행정 53명(15.1%), 구조 31명(8.8%), 기타 13명(3.7%)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근무형태를 보면, 3교대 근무가 196명(55.9%)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나 2교대 근무 비율도 92명(26.2%)에 이르러 경기도 내 소방서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3교대 근무를 도입하지 못한 것도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다. 소방공무원의 현 직무의 평균 근무기간은 61.03개월(SD= 77.87)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03개월(33.5년)까지로 나타나 순환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의 변수들을 하위변인을 함께 포함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보았다.

먼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체대상의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2.71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방공무원들은 보통에 못미치는 부정적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수준의 하위영역별 비교에서는 ‘참여’ 요인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네트워크’ 요인도 2.71로 나타나 인식수준이 낮았다. 또한 ‘신뢰’ 요인은 3.08, ‘협력’ 요인은 3.10으로 보통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이나 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여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잠재적 자원이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4.88로 보통을 조금 넘으며 총점기준으로 43.89(SD= 7.74)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척도로 조사한 Lee[28]의 연구에서 제시된 비행 청소년 집단(236명)의 평균 40.19(SD= 8.34)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N=351)

Variables	Mean	S.D	Likert
Social Capital total	2.71	0.56	5Point Scale
Participation	2.19	0.63	
Network	2.71	0.75	
Trust	3.08	0.69	
Cooperation	3.10	0.67	
Subjective Happiness	4.88	0.86	7Point Scale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력, 종교유무, 결혼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t검증을 통하여 Table 3과 같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종교유무를 제외하고 성별, 학력, 결혼유무의 변수들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4.63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4.21점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 $t=5.269, p<.001$ )를 나타내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ean	SD	t/p
gender	male (code=1)	326	4.89	0.86	1.728 (0.085)
	female (code=0)	25	4.59	0.7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code=1)	82	4.84	0.79	-0.379 (0.705)
	more than college (code=0)	269	4.88	0.88	
religion	in religion (code=1)	189	4.63	0.73	5.269 *** (0.000)
	no religion (code=0)	162	4.21	0.36	
marriage	married (code=1)	253	4.89	0.85	0.762 (0.446)
	single (code=0)	98	4.82	0.88	

\*\*\* $p<.001$

### 3.4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근무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종교유무( $\beta=2.101, p<.05$ )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종교유무는 모델 2에서도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2는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들을 모델 1에 추가 투입한 모형으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0.2% 증가하였고( $R^2$  Change =.102),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22.1%로 소방공무원의 주관적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6.799, R^2=.221$ ).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beta=.315, p<.001$ ), 신뢰( $\beta=.293, p<.01$ ), 협력( $\beta=.225, p<.01$ )이 주관적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잘 예측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정보공유, 의사소통, 사회활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 친척,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개인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조직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도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 Effects of social captical on Subjective Happiness

(N=351)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t	B	$\beta$	t
Gender	-.038	-.054	-.891	-.054	-.076	-1.285
Age	.021	.086	1.708	.005	.020	.282
Education	.031	.016	.330	.054	.028	.674
Religion	.176	.105	2.101*	.201	.120	2.285*
Years of Working	-.138	-.133	-1.275	-.077	-.074	-.793
Participation				.162	.094	1.765
Network				.221	.315	3.950***
Trust				.204	.293	3.359**
Cooperation				.147	.225	2.860**
R <sup>2</sup>	.119			.221		
F	5.961***			6.799***		
Durbin-Watson				1.954		

\* $p<.05$ , \*\* $p<.01$ , \*\*\* $p<.001$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방공무원의 주관적 행복감에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신뢰, 협력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소방공무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논의해보았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존재하므로, 네트워크, 신뢰, 협력의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조직 내에서 신뢰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는 특별한 관계구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동료는 물론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관계구조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야 소방조직문화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개방적 네트워크 기반의 신뢰관계 형성 및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소방조직 간 소통의 통로로서 공식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안부터 사소한 개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개방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수평적, 수직적 구조를 아우르는 공식적 네트워크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하게 갖추어야 하고, 정책결정자는 조직의 혈관과도 같은 네트워크에 막힘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평소 열심히 소방조직의 성과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동호회활동 등 지역사회와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건전한 개인적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이는 소방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소방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획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조직의 정책과 제도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현장지휘관과 정책결정자는 조직구성원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

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로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을 유의표집 방식을 채택하여 확률표집방법에 의한 대표성 있는 집단을 선정하지 못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다양한 독립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융합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 : 10.1037/0033-2909.95.3.542
- [2] H.G. Chu. (2005). Level of Happiness Index and Determining Factors. Doctoral's Thesis, Inje Univejrity Graduate School.
- [3] R. Veenhoven.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2-3 April.
- [4] S. Donnelly. (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 [5] U. S.. Moon. (2004). The Level and Job-related Provoking Factors of Firefighters' Stress. *Local Government Study*, 15(1), 119-141.
- [6] S. H. Ryu. (2014). The Association among Suicidal Ideation, Anxiety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Firefighter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5, 29-35.
- [7] Y. S. Chen et al.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Major Depression for Firefighters in Kaohsiung, Taiwan, *Quality of Life Research*, 16(8), 1289-1297.  
DOI : 10.1007/s11136-007-9248-7
- [8] S. T. Ka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triction on Leisure, Lifestyle and The Quality of Life on Police and a Firefig Hting Officer Who is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y. Doctoral's Thesis, Yong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9] R. Costanza, B. Fisher, S. Ali, C. Beer, L. Bond, R. Boumans, & J. Farley. (2007). Quality of Life: An Approach Integrating Opportunities, Human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Ecological Economics*, 61(2), 267-276.  
DOI : 10.1016/j.ecolecon.2006.02.023
- [10] W.T. Park.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Fire Servi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s Thesis, Paich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1] M. Woolcock. (2014).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12] S. H. Kim. (2014).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Doctoral's Thesis,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3] S. Sridharan, and Gillespie. (2004). Sustaining Problem-Solving Capacity in Collaborative Networks.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3(2), 221-251.  
DOI : 10.1111/j.1745-9133.2004.tb00038.x
- [14] H. M. Hong. (2005). A Study on the Types of Developing Resources Using the Social Networks within a Community : Applying Social Capital Perspectiv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58(4), 431-436.
- [15]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ublishing, Paris.
- [16] P, Dolan. T. Peasgood. & M.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 94-122.  
DOI : 10.1016/j.joep.2007.09.001
- [17] F. Fukuyama.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 80-97.  
DOI : 10.2307/20047302
- [18] T. Shildrick. & R, McDonald. (2006). In Defence of Subculture: Young People, Leisure and Social Divis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125 - 140.  
DOI : 10.1080/13676260600635599
- [19] S. Y. Kang. (2005). A Study of Low Level Fire Officials' Job Stres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 [20] Y. S. Yun.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mpact on Event on the Mental Health of Fire Fighters. Master's Thesis, Kwa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1] J. H. Ha. et al. (2001). Job Stress and Psychosocial

- Stress among Firefight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2), 104-111.
- [22] H. J. Lee. (2001). The Factors Affecting Firefighters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3] K. R. Kim. (2007). Consciousness of Fire Officers and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1(1), 7-18.
- [24] S. K. Sung, S. Y. Hyung, H. K. Lee. & Y. H. Kim. (2014).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Welfare and Welfare of Public Health Park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25] D. W. Kim. (2016). Study of Improvement Plan of Welfare Policy through Analysis of Job Environment of Fire Fighting Officials and Survey of Recogni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 [26] W. M. Rohe.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158-164.
- [27] E. K. Suh. & J. S. Koo. (2012).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6-114.  
DOI : 10.21193/kjssp.2011.25.1.006
- [28] H. J. Lee. (2012).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Juvenile Delinquents. Doctoral'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최 희 철(Choi Hee Chul)

[정회원]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9년 8월 ~ 2010년 2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 E-Mail : pride838@kangnam.ac.kr